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홍해자작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으니

에스더 9장 22절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와 그 역사를 함께한 너무도 중요한 영적 각성 집회입니다.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깨어진 관계와 건강의 회복, 개인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수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홍해작전의 주제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주제에는 지난 20년 동안 홍해작전을 통해 주신 회복과 부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에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만 장군의 음모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한 국가의 리더들의 상황을 조성하시며, 모르드개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심으로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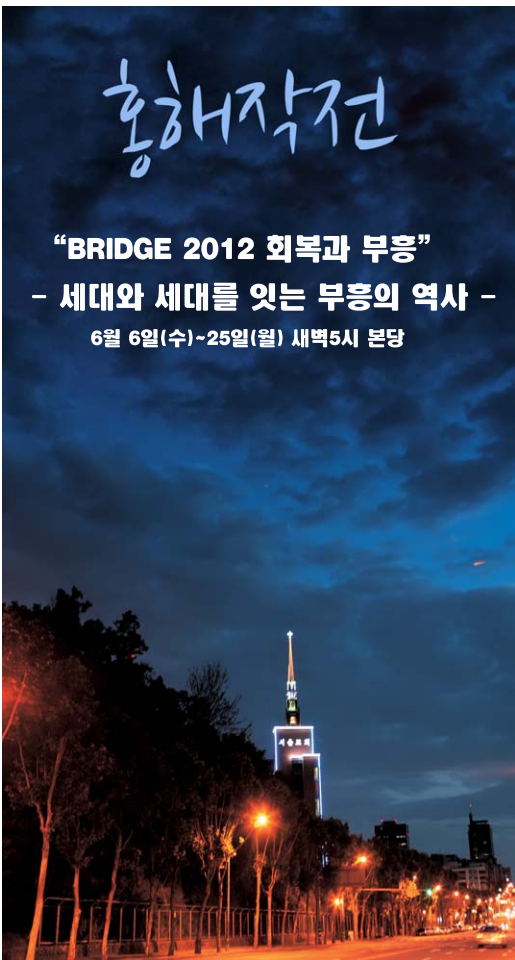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애굽 군사들,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며, 원수들은 홍해에 전멸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 극한의 고통을 맛보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난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의 회복과 부흥은 가능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이번 홍해작전에 임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다 함께 참사를 독려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 홍해작전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 2012 홍해작전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2012년 홍해작전이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6월 6일(수)부터 25일(월)까지 새벽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이며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라는 부제로 제2대 박노철 목사 위임 이후 첫 번째 맞는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801호에 아침식사가 준비되며 교회에서 주무시며 참여하실 성도들은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전교인 ‘회.복.부.흥’으로 4행시 짓기, 영어예배부는 ‘B.R.I.D.G.E’로 6행시를 지을 예정이다.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은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선교사 파송

김낙형 · 오정녀 선교사 / 아프리카 케냐로

우리교회는 지난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를 아프리카 케냐에 파송하였다. 김낙형 선교사는 우리교회 베들레헴 찬양대를 지휘한 바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도시빈민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하여 찬양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한 아mani 음악학교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를 위하여 많은 무릎선교사들이 동역하기를 소원한다.

## 응고마 야 뭉구(하나님의 복) 중창단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아프리카의 선교중창단인 "응고마 야 뭉구(하나님의 복) 중창단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012년 여수 박람회 기간(6. 22일)에 연주를 위해 내한한 응고마 야 뭉구 선교 중창단은 아프리카 음악원에서 훈련을 받으며 아프리카 음악만을 연주하는 중창단이다. 오늘 연주 될 곡목은 탄자니아곡 "다시 만져 주소서" 외 세계 여러 나라의 찬양 모음곡 등을 연주한다.



## 신생아 첫 예배 참석 축복기도

서울교회에 주일1부, 2부, 3부 예배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신생아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가 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100일 이전의 아이지만, 건강 상의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은 100일이 넘어도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다. 축복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들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성경, 찬송가 지참하기 운동

요즘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가를 지참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크리스천이란 중요한 증거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봉독 시간에 스크린에 말씀이 뜨는 것에 초신자들, 그리고 눈이 흐려 성경책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함을 깨달아 꼭 성경찬송을 지참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1]

(문 46)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어야 했습니까?

답) 민수기4:3에 의하면 삼십 세 이상 오십 세 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8:24에서는 이십 오 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Jamieson은 25세 때 회막에 생도로 들어가서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쌓은 후 30세 때부터 공식적인 일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자손 중 25세 되는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 5년간 견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등잔을 옮기는 방법이나 진설병을 차리는 방법 두 제단을 놓는 방법 등을 익히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잔과 그릇 손가락과 정결케 하는 기름과 물의 위치 등의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온 예배자들을 섬기는 일과 회막을 지키고 보수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에 종사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의 종노릇하면서 특별한 책임의식을 전수 받기도 한 것입니다.(삼상3:1) 이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5세가 적당하지만 그보다 어린 나이에 속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일을 다른 나이에 속한 이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3:8에서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스라2:40과 느헤미야7:43에 의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레위 사람의 수는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 성전의 종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4,289명이었는데(에스라 2:36-39)비해 적은 수이므로 레위인 중 20세가 못되어도 성전 복구 작업에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레위인들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과 예배행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건축과 관계된 일에 종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5세보다 어린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음주 계속)

## 신앙강좌1부 1학기 수료자

윤찬호 안성광 이택빈 최인수 신성균 최명남 한종우 김규환 이은상 임종태 강승웅 이광원 박희서 김현관 이상호 홍창배 구흥환 배준길 전영돈 김상태 양지훈 신종건 박석현 오교식 고영숙 고완순 조민자 이순영 마은숙 황노전 김정희 박명석 남상경 최진 이재순 이정자 김자경 최화옥 김선자 문가자 진형숙 박복순 홍성숙 원명희 김신애 김집숙

# 서울교회 역사와 함께 한 '홍해작전'

홍해작전은 요람의 젖먹이부터 병상의 어른까지 온 교인 가족들이 총력으로 참여하는 말씀과 기도의 대행진이다. 6월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달려 나와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앞에 산적한 현안들을 주께 고하고, 눈물을 바치며,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 20년 동안 홍해작전 기도카드

그러기를 20년, 지난 세월의 흔적은 해마다 제작된 홍해작전 공동기도제목 카드들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때 그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놓은 기도제목 20년치를 찬찬히 읽다 보면, 그 시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 홍해작전은 실로 우리 교회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창립 초창기 홍해작전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치 아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도전들로 채워졌고, 새 예배당 건축이 가시화되던 90년대 후반엔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신과 기적이 잇따랐던 시간이었다. 실제로 1997년 홍해작전 마지막 날엔 새 예배당 건축을 몇 년간 끈질기게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 눈 녹듯이 변해 반대를 철회했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2005년엔 청년들의 기적이 있었다. '홍해작전 150명 참석'을 놓고 릴레이 금식 등 간절한 기도를 이어간 당시 청년부원들은 그 해 홍해작전 마지막 날 정확히 150명이 출석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주일 출석인원 백 명에 불과했던 당시 청년부가 단일 부서 참석인원으로서는 지금도 깨기 어려운 대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뜨거운 참여 열기는 병상에서도 식지 않았다. 2003년 윤윤희 집사의 '병상홍해작전' 이야기는 지금도 큰 감동을 준다.

"2003년 6월 9일, 그 날은 3교구 일제심방 마지막

날이었다. 올해 82세이신 윤윤희 집사님은 9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교회 나오시기가 어렵게 되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서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번 심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사님의 병상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

선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03 홍해작전 기도 카드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해작전이 시작된 그 날부터 7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다. 순간 그 방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모든 심방대원들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듯 했다..."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의 자랑이지만, 홍해작전과 같은 특별새벽기도회는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한국교회만의 도전이다. 우리 교회의 홍해작전을 본 외국 교계 지도자들이 가운데에도 자국 교회에 이를 도입하겠다는 인사가 많았다.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를 처음 해보았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본 한국교회는 자명종 같았다..." - 멜번 리 다인(뉴질랜드, 1996년 우리 교회 김치세미나 참석)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지금은 안 하거나, 한두 해 쉬었거나, 이름이나 성격이 바뀐 것도 있었다. 그러나, 홍해작전처럼 창립 이래 해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롯이 지켜온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홍해작전이 올해의 주제처럼 '부흥과 회복의 다리'가 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의 역사적 기념비가 되도록 이번 6월도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승전하길 소망한다. 편집부 : 김민철 집사

## <Q&A> 새가족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 (새가족Q1) '홍해작전'이 뭔가요?

(순례자A1) 우리 교회가 매년 실시하는 특별새벽기도회의 이름입니다. 애굽 군사들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듬해부터 해마다 홍해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 (새가족Q2) 왜 '작전'이라고 부르나요?

(순례자A2)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홍해작전 기간엔 담임 목사님을 '사령관'이라고 하고, '개전'과 '승전' 등 군사적 용어를 쓰기도 하고, 대개 호국의 달인 6월, 그것도 현충일인 6일부터 6.25기념일인 25일까지 진행되는 등 '영적 전투'를 강조합니다.

### (새가족Q3) 평소 새벽기도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순례자A3) 6월은 1년 중 가장 일찍 해가 뜨는 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앞당긴 새벽 5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말씀과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신 분도 이 시간에 약속 있으신 분은 없겠죠? 온 가족이 함께 홍해를 건너며 충만한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기간 중 주일날은 일반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시작시간도 5시30분 평소와 같습니다.

### (새가족Q4) 특별히 준비해 갈 것이 있나요?

(순례자A4)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필요한 준비물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선포한 공동기도제목은 적은 카드, 잊지 말고 꼭 갖고 다니시며 열렬히 기도하여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넌시다!

### (새가족Q5) 올해 홍해작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순례자A5)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홍해작전은 박노철 목사의 위임 이후 처음 맞는 홍해작전입니다. 사실 박 목사는 홍해작전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9년 홍해작전 때였는데, 그때 초빙 받아 선포한 은혜의 말씀이 계기가 되어 우리교회가 청빙을 하게 되었답니다.

##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손짓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전혜연 집사(13교구)

박노철 목사님,

저는 공군 파일럿 대령인 남편과 주말부부로 두 딸의 엄마인 전혜연집사이며 서울교회를 섬기지는 6년이 되어갑니다.

재작년 1월 갑상선암 2개를 발견하여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어 자궁근종 수술까지 받았으며 그 해 큰딸은 재수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단 한 번의 실패없이 씩씩하게 살아온 남편이 장군 1차 진급의 좌절로 상처가 몹시 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날부터 하나님은 제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시더니 며칠 지나서부터는 말씀이 나의 온 몸을 감싸는 듯한 기쁨과 희열이 느껴졌습니

다.... 그 날부터 내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연약한 자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15분씩 일찍 도착해 기도로 준비했고...

홍해작전 중 저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치해 주실 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시다.

주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48년동안 그렇게 손짓하시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 위 글은 2011년 홍해작전 중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문으로 전문은 서울교회 홈페이지>소식>컬럼 에 들어가면 읽을 수 있다.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현수 집사(12교구)



올해도 서울교회의 전통이며 자랑인 홍해작전이 박노철 목사님의 인도로 6월6일부터 개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신 그때를 다시금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모든 홍해를 갈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봅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이 4번째 홍해입니다. 2009년 홍해작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간절히 바라왔던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되어 태어난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깨닫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새벽에 곤히 잠든 아이모습을 보고 깨우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고 우리아이의 주인도 주님을 깨닫고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땐 어김없이 아내가 힘이되어 줍니다. 이럴 때마다 가정이 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여러분 이번 홍해작전 새벽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남녀 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우간다 응고마 야 문구(하나님의 복) 연주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박마리아선교사가 설립한 아프리카음악(대학)원(Africa Institute of Music)의 연주팀중에 아프리카음악을 담당하는 연주팀으로 한국에서 두차례, 미국에서 한차례 연주한 바 있으며 6월 22일 여수엑스포 '우간다의 날'에 공연할 예정이다. 오늘은 기도송과 찬양, 타악기와 춤 등을 연주한다.

## 2012 전국 장애인

지난 4월 27일(금) "2012년 전국장애인 제과기능대회"가 서울 성민복지관에서 열렸다. 롯데삼강, 삼양사의 후원 하에 열린 전국장애인제과기능대회는 제과부분 중 케익구성 및 데코레이션 등의 케익완성 부분에 대한 경연으로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총 15개팀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참가하였으며, 본 대학에서는 2개



팀 총 4명(서비스학과 박희정, 윤지현, 이승아, 유윤희)의 재학생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를 위해 학생들은 제과제빵 노정미 교수와 본 대학 제과제빵실에서 한 달 동안 늦은 밤까지 연습, 서비스학과 박희정, 윤지현 조가 15개 팀중 3등(은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제과협회 케익디자인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2012년 제6회 호산나대학 축제

지난 5월 25일(금) 호산나대학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인근지역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제 6회 호산나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호산나 축제는 청춘(청년)이여 춘을 즐겨라! 이라는 주제로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평 맹호부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군악대, 팝피사물팀 및 인근학교의 밴드팀의 다양한 형식의 콘서

트가 진행,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사회성과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 및 외부학교에 호산나 대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서울교회 법인에서는 축제 무대설비와 음향장비대여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었다.

###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일(주) 산정현교회 주일1,2부 예배설교를 한다. 4일(월) 한국장로교의교단단체 헌법안세미나, 5일(화) 탈북난민을 위한 난민추진위위원회, 7일(목) 아시아로잔실행위원회, 8일(금) 장로교 학교단체헌법시안위원회를 소집한다.
- 사임 : 김은수 협동목사는 5월 30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임
- 독주회 : 최수환 집사 (임마누엘찬양대) 피아프오르간독주회 6월 4일(월) 오후 7시30분 서울교회 -노은아집사(해금), 김양언 선생(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 협연
- 주간식당봉사 : 발림선교회(6.3) 안드레선교회(6.10)
- 금주의 식사 : 이영조 집사 · 이영자 권사 가정  
원용규집사 · 박이선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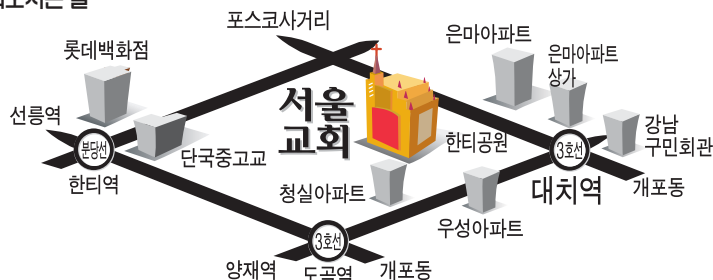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6일(수)부터 시작되는 홍해작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케냐로 파송받으신 김낙형/오정녀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 시어 늘 강건함으로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3. 한 마음 한 가족 잔치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다락방 사역이 더욱 견고히 세우어져 갈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